

學校建築에 관한 小考

An Essay on School Architecture

金 承 濟*
Kim, Seung Je

1. 學校의 意味

인간은 혼자 살수 없으며 사회집단을 구성하며,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집단이 그 구성요소인 개개인의 인간에 대하여 교육을 해야 한다는 불가피한 요구가 필요하게 된다. 즉 사회집단의 존립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칙을 개개인 모두에게 전해주는 사회적 통제의 기능이 요구된다. 이 기능에는 교육이외에 지식과 기능, 도덕 등 소위 문화의 획득과 전달이라는 작업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목적을 제외 시키고는 사회집단은 존속·발전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역사는 그 자체가 교육의 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생물체 개체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이 즉 비사회적 존재인 어린이가 성장 발달하여 사회적 존재가 되는 사회화의 과정이 교육이라는 점이다. 원초적 교육인 가정교육의 영역을 넘어선 사회집단에 대한 교육인 公教育의 실현에서 학교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겠다. 학교가 있어야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어느정도 이상의 문화수준이 도달하게 되면 종래의 가정이나 사회기능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 단순한 문화나 양적으로 한정된 문화를 갖는 사회에서는 학교를 세울 필요가 없겠지만, 문

화가 이질화·다양화되고 양적으로도 증가하게 되면 이를 얻고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가정과 기존사회의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계획성 없는 비조직적 교육인 가정교육에 대신하여 목표설정을 명확히 하는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교육의 장소인 학교가 필요로 하게 된다.

학교란 자연발생적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다. 또한 사회를 지지하는 근원적인 기능인 교육을 독자적인 형식이나 제도로서 구체화된 것이 학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의 기본적인 의무는 지금까지 사회가 축적하여 온 전통·문화를 새로운 세대에 전달하는 즉 사회의 유지·존속에 목표를 둔다.

학교의 사회적 기능이 현상긍정의 보수적 기능이라는 의미에서, 학교란 항상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상의 타파, 즉 사회개혁의 가능성을 학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의 보수적 기능은 실제로는 혁신적 기능(창조적 기능)과 함께 한다. 즉 학교의 본질에는 체계적이며 기성사회에의 순응·적응을 실행하는 의미 이외에, 학교란 항상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脫學校論'이란 학교의 존재를 부정하는 學校死滅論이 아닌, 학교를 진정한 학교로써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즉 새로운 학교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음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 正會員, 光云大 建築工學科 教授

2. 近代社會와 學校建築

모름지기 그 시대의 건축물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대변해 주는 문화의 표현이라 하겠다. 학교건축물 역시 그 시대 문화속의 산물이며 이러한 흐름속에서 그 모습과 이상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近·現代史의 흐름속에서 학교 건축의 변화를 사회상과 비교해 봄으로서 현재 우리의 입장과 앞으로의 學校建築의 未來像을 찾아 보고자 한다.

2-1. 近代學校建築의 出現

근대유럽문명의 원천은 정신적으로는 1789년의 프랑스혁명을 기반으로 하며, 물질적으로는 産業革命(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 1769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전자는 개인적인 자유, 인간평등, 主權在民, 민족주의, 애국사상이 원천이라 하면, 후자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기술발전이다. 특히 산업혁명에 의해 새로운 농업형태와 공장제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생산의 비약적인 발달은 노동, 생산, 운수등 생활전반에 걸쳐 사회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나아가서는 유럽의 문화와 문명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19세기의 유럽사회는 커다란 변화속에 있었다. 즉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였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모습은 급격히 변화해 가고 있었다. 새로운 사회구조의 변화, 예를들어 급속한 인구증가, 문화의 대상이 귀족이나 왕족의 특수층을 위한 것에서 대중으로, 대상지역은 정원에서 도시로, 생산방식은 수공업에서 공장생산에 의한 대형화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질서와 함께, 새로운 건축물이 등장하며, 이는 도시의 모습을 바꾸어가게 하였다.

즉 전원생활은 대중의 도시생활로 변해가며, 대량생산의 기능과 사회적 요청에 의해 도시에서는 공장이 설립되며, 노동자를 위한 주거,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유통을 위한 시장(지역적인 시장에서 세계박람회 이르기까지)과 각 지역을 철도와 도로에 의해 연결시

키는 역사의 출현, 새로운 사회구조에 의해 탄생된 대중교육시설의 등장(근대교육시설의 효시), 오피스의 등장등은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모습으로 변하여 간다.

2-2. 教育環境의 變遷

1850년경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의 성인 가운데 최소한 60%이상이 문맹인이었다고 한다. 근대의 신화라 할수 있는 국가주의의 등장은 국가가 언어를 통일할 수 있었음에서 가능하였으며, 이를 지지하였던 것이 바로 학교였다. 초기의 학교교육은 국어와 산수를 대중에게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으로 칠판과 책상·걸상을 놓을 수 있는 장방형의 교실이면 충분하였다.

근대교육의 효시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발전을 보게 되는데, 1833년 제정된 국민학교 설치령을 위시하여 1871년에 제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무상·의무·비종교라는 공교육이 실현된다. 그 결과 1881년 6월 16일에 공립국민학교의 무상화 법안이 성립되며, 계속하여 1882년 3월 28일에는 초등교육의 의무화, 비종교화 법안이 성립하게 된다. 이로써 교육의 대상이 이전에는 일부 특수층(예를들어 왕족, 귀족 혹은 카톨릭 수도원 학교등)만이 혜택을 받아 왔으나 국민 전체인 대중으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학교교육의 대상이 전환되어 대중교육이 실현되는 시기를 '第1次 教育革命'이라 부를 수 있겠다. 즉 대중을 위한, 대중교육이 출현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대중교육혁명이 가능하게 된 이유에는 바로 산업혁명에 따라 일반대중이 부를 축척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중교육에 있어서 학교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산업혁명 이전의 학교건축은 그 시대의 주양식이었던 고전주의 건축(광의적인 의미)의 형태를 띄고 있었으며, 산업혁명 이후의 학교건축은 대중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그 외형적인 모습도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근대건축의 대표적인 형태인 상자곽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근대초기의 학교건축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환경 조건의 개선이라는 학교건축의 내용과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 즉 교육내용의 다양함과 수준의 향상등에 따라 학교시설의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영국을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공간대응을 고려한, 특히 아동의 생활공간의 확보라는 이념을 도입한 매우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공간구성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시기를 '第2次 教育革命' 이라 부르고 싶다. 물론 이 시기의 학교의 모습은 근대건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개선의 움직임은 미국의 학교건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며 유럽의 학교와는 다소 다른 시스템(오픈형의 평면구성, 적극적인 지역개방의 도입등)의 학교로 발전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 대중문화는 Post-Modern 시대에 들어선다. 건축양식적으로도 이전의 기능주의적이며 Utopia적인 근대건축의 이상은 한풀 꺾이고 새로운 현대건축이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현대건축의 모습은 포스트모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적이며 과거지향적인 복고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수 있는 공간이 요구되며, 건축에 컴퓨터를 위시한 여러가지의 high technology 를 적극 이용하려는 경향을 띠게된다. 이러한 건축을 종종 우리들은 Intelligent Building이라 부르고 있다.

Intelligent Building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知的의건물이 되는데, 여기서 知的이란 의미에는 정신적·물질적 문화의 세련됨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첨단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물질적인 차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

하지만 원래는 문화와 하이테크가 공존하는 모습이라 하겠다. 포스트모던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은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각각 개인의 능력에 맞는 개별화 교육으로의 변환이 요구되며, 학교를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시설로서 하이테크(컴퓨터등)가 구비된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지역문화시설로서의 역할 역시 학교건축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의 변화는 Open Education이라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출현시키는데, Open Education에 대한 이론은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초반 일부 교육학자에 의해 소개된 적이 있었으나 당시의 교육현실과의 너무나 커다란 격차등으로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하였던것 같다. Open Education의 정의를 간단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열린교육 즉 넓은 의미에서는 평생교육에서 좁은 의미로는 개인능력에 맞는 교육방법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목표와 방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건축이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아마도 학급단위를 기본으로 구성된 기존의 7.5m×9.0m라는 교실크기를 갖는 획일적인 학교 시설로는 상기의 교육목표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함은 쉽게 예측할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 오일쇼크 이후 세계는 정치적·사회적인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제까지의 대중적이며 획일적인 학교교육에서 탈피하여, 각 개인의 능력과 평생교육의 시점에서 지역과의 관련 등을 중요시

○ 建築樣式 :	古典建築	→	近代建築	→	現代建築
	Classic		Modern		Post-Modern High-tech
○ 主要事件 :	산업혁명	1차세계대전	2차세계대전	오일쇼크	
○ 教育變革 :	第1次教育革命		第2次教育革命		第3次教育革命
	(대중교육의 실현)		(교육환경의 개선)		(개성화·평생교육)
○ 教育對象 :	個人(貴族)	→	大衆	→	大衆 → 個人

표 1. 건축양식의 흐름과 학교건축의 상호관련

여기는 교육과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의 움직임을 ‘第3次 教育革命’이라 부르며 이러한 교육이념에 의해 출현하게 된 학교를 오픈스쿨이라 부르고 있다.

3. 學校運營方式의 考察

3-1. 運營方式의 흐름

운영방식은 학교건축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며, 이는 학교의 건축공간 계획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운영방식이란 학생과 교사가 각 시간마다 교과과목의 종류에 대하여 교실 또는 학습공간을 어떻게 나누어 사용할 것인가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클래스를 하나의 학급단위로써 생각할 때의 방식이다.

표 2에서 나타나는 교실의 종류들이 서로 조합되어 여러 타입의 운영방식의 학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운영방식으로 綜合教室型(클래스룸 U형), 特別教室型(클래스룸교과교실 U+V형), 教科教室型(교과교실 V형)의 3타입으로 집약할 수 있겠다.

구 분	특정학급만 사용	여러학급 공동사용
특정교과에 사용	특정교실(Special)	교과교실(Variation)
여러교과에 사용	클래스룸(Usual)	일반교실(General)

표 2. 교실의 분류

가장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아마도 학급수 만큼의 교실수를 갖는 종합교실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교실에서 모든 교과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비와 생활공간이 필요하다. 종합교실형은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는 교과내용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음악이나 미술 등 다른 학급에 방해가 된다던지 물을 사용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특정한 교실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한 과목을 할 수 있는 특별교실이 보통교실

과 함께 등장하게되어 특별교실형을 만들어 낸다. 이 특별교실형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 되어 있는 방법으로 표준설계도에 의해 방법이기도 하다.

특별교실형은 일부의 교과가 그 특정성을 인정받아 별도로 독립되는 형태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매우 경제적인 타입이라 한다. 그런데 모든 교과내용의 수준의 높아짐에 따라 모든 교과가 교과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게 된다. 이는 모든 교과가 특별교실화 하려는 요구의 표출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학적으로도 각 교과의 교실을 특별히 마련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만일 모든 교과가 특정한 교실인 교과교실을 갖게 된다면, 기존의 특별교실형에서는 일반교실의 이용율이 현저히 저하해 버리며 일반교실의 의미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이는 곧 교과교실형의 출현을 말해 준다. 실제로 최근 컴퓨터교실, LL교실등의 새로운 특별교실의 등장은 일반교실의 이용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과교실형은 학생들의 교실이동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에 안정감이 결여된다는 단점이 자주 지적되어 왔으나 이는 합리적인 계획방법(원활한 동선계획, home bay등의 생활공간 설치)에 의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와같이 3가지 타입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보편화 되어있는 특별교실형은 진정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출발한 운영방식이기보다는 종합교실형과 교과교실형의 중간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과도기적인 운영방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표준설계도로서 대표되는 특별교실형은 해방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국가 환경속에서 교육시설의 수준향상을 이루워왔다는 공적은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을 경제성만을 따지고서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풍요로운 시대에 들어 섰으며, 교육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가능한 시대에 있는 것이다. 기존의 과도기적이며 경제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

꾸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있다.

학교건축이라면 당연히 표준설계도에 의한 특별교실형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 질수있는 운영방식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6년간의 교육기간으로 저학년과 고학년과의 신체적·정신적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저학년에서는 하나의 교실에서 모든 교과를 수행할수 있는 종합교실형을, 고학년에서는 교과과정 수준의 향상에 따라 교과교실형을 권유하기도 한다. 특히 종합교실형은 유치원에서 더욱 적합하다. 최근 교육부에서 시범학교로서 새로이 계획건설된 서울 불암국민학교에서는 저학년에서는 종합교실형, 고학년에서는 특별교실형의 복합운영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각 교과의 특성을 살리 수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과교실형을 제안하고 싶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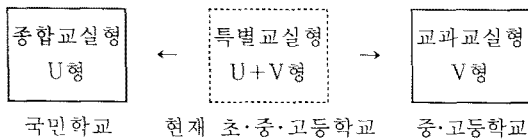


그림 1. 운영방식의 제안

3-2. 오픈스쿨의 出現

이상의 종합교실형 혹은 교과교실형은 학습 단위를 학급이라는 집단을 기본으로 하는 하나의 유니트로서 고려한 운영방식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교육환경개선과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공헌을 하여왔다.

그러나 세계는 공업화 사회인 근대사회에서 정보화 사회인 현대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이제는 교육도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아동을 교육해야 한다는 새로운 역할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육대상의 측면에서 볼때, 학급을 유니트로서 하는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아동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중요시 여기는 개별학습과 평생교육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이념의 교육방법의

하나인 Open Education을 제3차 교육혁명이라 부르며, 또한 이러한 교육방법을 실천하는 학교를 Open School이라 부르고 있다.

여기서 오픈화의 개념이란 학교건축에 대하여 정해진 교육적 요구가 있어서 그에 대응하는 건축이나 교실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어떠한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Open-School이라는 활동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래 추측할 수 없는 교육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구성은 물론, 아직 알 수 없는 미래의 교육활동을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을 지닌 학교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픈스쿨의 모습이란 어떠한 규정된 모습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3-3. 施設改善方法과 오픈스쿨에로의 接近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 선진국의 수준에서 볼때는 아직 충분한 제2차 교육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속에 선진국의 제3차 교육혁명인 Open-School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인가. 이 점은 미래 한국의 학교건축에 대하여 論할때 매우 논쟁의 핵심이 될 것이다.

예컨데 선진국의 오픈스쿨은 제2차 교육혁명의 달성을 통해 학교시설의 충실화를 꾀한 다음에 새로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라 한다면, 아직 전단계인 제2차 교육혁명을 거치지 아니하고 과연 제3차로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과연 무리를 해서라도 뛰어넘는다면 무엇이 득이되며 무엇이 損이 될 것인가. 이는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미래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현재의 열악한 기존학교시설의 환경·시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 미래의 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일까. 종래의 교육방침에 의해 건설된 학교건축을 겹대기만 번지르르하게 단장을 한다고 시대에 대응할수 있는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교육이념을 실행 시행시킬 수 있는 새로

은 교육방법과 교육공간이 필요하다. 기존의 획일한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능력을 중요시여기며 평생교육의 장소로서 학교의 모습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융통성있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타입으로 오픈스쿨의 적극적인 도입을 기대한다.

4. 劣惡한 財政 解決方法의 提案

우리나라 학교건축의 현실적인 면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은 바로 부족한 시설투자라는 재정문제에 있다. 현재 공립학교를 신설할 경우 그 비용은 정부가 100%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투자액수(신설 공립학교 설립의 경우는 1994년 현재 건설비가 학급당 약 8,000만원정도로 36학급의 경우에는 약28억8천만원이 된다. 일본의 橫濱本町國民학교의 경우는 21학급에 총공사비(1986년)가 12억4천7백만엔이다)가 너무나도 부족함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기존의 시설투자만 가지고는 교육기기 구입 등은 둘째치더라도 단지 건물자체만 짓는 데에도 모자라는 실정이다.

최근 '학교시설의 현대화(1987년)' 라는 연구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육시설현황에 대하여 공간부족은 물론 환경·위생면의 열악함과 예산부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낙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데, 문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초과하는 필요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약간은 시기상조일지는 모르지만 우선 지역주민의 시설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 및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충분하지 못함은 사실이다. 때문에 학교재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있어서는 않되지만 실제로는 음성적인 방법인 기부금형식으로 학교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학교가 없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기부금 조차 없다고 한다면 학교교육을 운영하는데 많은 장애받는 학교가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기부금은 자의던 타의던 가끔씩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곤 하지만 그저 미해결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누군가가 학교에 투자한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부금을 폐쇄적이고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있다 하겠다. 학부모들은 실제로 학교에 투자를 하고서도 얼마만큼의 혜택을 자녀들이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그 중요성을 생각할때 너무도 낮은 현실이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액도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수치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투자에 대하여 우리들은 간단하게 정부투자만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미 정부의 힘만으로는 교육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에 와 있는지 모른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누구인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은 다른 공공시설과는 달리 비영업적이며, 그 지역의 주민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이다. 안정된 지역이라 가정한다면 대부분의 그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일 것이다. 때문에 지역주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공공시설로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하다. 이처럼 학교와 지역주민과의 사이에는 밀접한 상호관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 지역의 학교교육 및 시설에 대한 투자는 바로 그 지역의 주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 내용은 합법적이며 개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이외 여러 측면에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성립됨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교개방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의 개방은 시설의 질을 높일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학교와 학교시설의 共用化·共同化 이용이 가능할 것이며, 타지역 시설과의 기능분담이라는 당면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교육은 많은 분야와 관련을 갖는다. 학교시설을 생각할 때에는 어느 누구나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

나라 교장, 교사, 학생, 지역주민, 교육전문가, 관련공무원 등 교육관련자 모두가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획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요구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으며 명실공히 지역의 학교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시설이야말로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며 후손에 길이 남겨줄 수 있는 문화재로서의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마지막으로

건축물은 그 시대의 산물이며 그 시대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다. 여기서 요구란 좁게는 공간의 기능적인 요구에서 넓게는 기술적·지역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등의 요구로 이들이 종합적으로 만족을 이루어 질때 비로소 건축물이 실현된다. 또한 건축물이란 풍토와 기후등의 자연환경에 강한 영향을 받음으로서 그 지방·지역에 특색있는 건물과 환경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인간의 요청과 자연환경의 영향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은 반대로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공간을 창조하고 동시에 그 공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근대이후 건축에 관련된 재료와 공법의 발전, 설계기술과 공업화의 발전은 건축문화의 흐름을 소위 표준화라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20세기중반이후 인간적인 환경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지방·지역성 등의 전통문화가 강하게 표현되는 脫近代 라는 건축문화가 현대사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학교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해야할 역할과 의무를 갖고 있다. 이제 학교는 아동교육만을 수행한다는 단순한 기능에서 벗어나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로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와 이를위한 교육공간의 재편성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교육에 대한 기존의 사회불신을 해소하고, 새시대에 대

응할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물론 민간측에서의 적극적인 투자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학교시설이 지역의 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소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건축계획은 학교시설 하나만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 학교와 학교사이의 관련에서 부터 타 지역시설과의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역시설 배치계획의 일환으로서 고려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參考文獻

- 은용기외, 열린학교 열린교육,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12
- 金承濟譯, 오픈스쿨, 産業圖書, 1989. 11
- 金承濟, 學校開放을 통한 커뮤니티형성의 가능성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989. 12.
- 柳川寬治監修, 子供たちを育てる學校施設 第一法規, 1985. 3
- 日本建築學會, 學校建築計劃 計劃と設計, 1985
- 日本建築學會編, 學校の設計, 新築大系29, 彰國社, 1985
- 松原治郎外, 地域と教育, 教育學大全集 9, 第一法規, 1984. 1
- 日本放送出版協會, 放送大學教育振興會 生涯教育論, 1984. 8
- Design Note 5, The school and the Community, 1970
- Design Note 14, School and Community, 1976
- Design Note 15, The school and the community, 1977
- School and Community, The Architects Journal, 1976
- Community/School Sharing The Space and The Action, The Urban From Education Facilities Laboratories, 1974
- The Urban School Building for Education in London 1870-1980, 1983